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4월27일(금) 금요기도회는 Dreamers Worship 팀을 초청해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양예배로 드립니다.
- **선교부:** 4월 28일(토)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Paint Day가 있습니다.
- 시간: 1시-3시
- 성인: \$25, 부부: \$40, 학생: \$15
- 중고등부는 5월12일(토) 뉴욕/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배구대회에 참가합니다.
- 5월13일(주, 어머니날)은 자녀들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Edwin Kim 전도사가 말씀 전합니다.
- **임시공동의회 공고**
- 일시: 2018년 4월29일(주)
- 안건: 교칙개정위원회 구성
- **교우 동정**
- 배종우 집사님 차녀 배소현 화백 전시회가 Phillips Gallery (450 Park Avenue at 57th Street) 에서 6월6일까지 열립니다. 4월25일(수) 저녁 5-7시 리셉션이 있습니다.
- **담임목사 동정**
- 담임목사는 5월7일(월)부터 17일(목)까지 한국 방문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4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홍성훈 집사 (시편 22:25-31)

이번 주 친교: 강승연 자매, Judith Rizzio

다음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임수연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21:15-22** -----인도자
 설교(Sermon)-----“**헛되지 않은 수고(3): 사랑**”-----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320장 (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23편 ----- 홍성철 집사
 찬양(Choir)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21:15-22**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헛되지 않은 수고(3): 사랑**”-----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303장 (통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헛되지 않은 수고(2): 소망 (롬 8:18-30)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 대상이 진짜여야 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지금 없는 장래 일을 바라는 것인데, 그 장래 일이 진짜여야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뤄지지도 않을 장래를 위해 수고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약속이 진짜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소망은 현재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기지만 소망을 잃으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장차 영광이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을 이깁니다.

장차의 영광, 다시 말해 부활의 참된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부활할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생명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심히 좋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썩어져 가는 피조세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새 창조의 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 제자들은 만물이 하나님께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예수 믿고 거듭난 자신 들 속에서도 완전히 예수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 구속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장래 일일 뿐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기에, 지금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귀중합니다. 천국갈 날을 기다리지만 하는 대기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속이 영광 가운데 완성되면, 우리만 대박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회복됩니다. 피조물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성령께서도 그 날까지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은 여전히 풀과 같이 짧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역과 기도가 사용됩니다. 수명의 길고 짧음에, 성취의 정도에 상관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린 모든 수고는 귀하고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역사하시기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불의하고, 육신의 소욕은 기세 등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은 감춰져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 받은 증거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입니다. 그 진통을 통해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죽은 증거이지 복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천년 전 사건도, 언젠가 있을 막연한 장래가 아니라,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허공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겠습니다. 간구해야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목말라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또한 그 부르짖음이 주님이 이미 임하신 증거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이뤄진 소망을 살아내는 사람들처럼 빛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